

과거형의 부모님과

현대형의 부모님

이 순 일
이화 유치원 원장

과거 형태를 물론하고 그 부모님이 자녀의 성공을 빌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녀를 배불리 먹이고 따듯이 입혀야 하겠다는 생각은 그 어느 쪽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학교 교육 역시 최고 학부까지 일류 학교를 졸업시켜 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서 과거형과 현대형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으니 이는 그 자녀를 이해하는 생각과 방법에서이다.

전자는 애기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서 드러다 보고 얼러보고 몹시 기뻐한다. 그러나 후자는 그 어린이의 시력이 운동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매달아 주어 시력 발달을 시켜 주어야겠다고 작난감 가게로 뛰어가거나 어머니가 손수 움직이는 물건을 만들어서 더욱 선명히 예쁜 생각을 선택해서 그 갓난 애기 눈 앞에 매달아 준다. 그리고 예쁜 소리



글 쓴 이

가 나는 혼드는 작난감을 사다가 흔들어 보여 주며 청각도 함께 발달하도록 도와준다. 몇달 지나가서 어린애기가 기어다니게 된다. 이 때에도 과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준 것이 었었다. 열심히 주전자를 보고 기어 가면 어른은 더 빠른 속도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신문 한장을 보고 열심히 기어가고 있으면 이번에는 아빠가 먼저 와서 집어 치운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님은 어린이가 만져보고 찢어보고 두들겨 보는데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생기고 배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엇이나 그 앞에 제공해 준다. 쓰지 못할 흰 책을 주어 찢어보게 하고 색깔 예쁜 조그마한 공을 주어 그 공과 함께 온 방안을 기어다니는 활동을 시켜주고 흰 양재기라도 깨끗이 소독해서 그 앞에 놓아준다. 여기서 전자의 어린이는 실망을 거듭 체험하는 중에 무엇이나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후자의 어린이는 무엇에나 호기심을 이르고 희망에 찬 눈초리로 서슴치 않고 무엇에나 접근해 보려고 하고 그 눈에 띄는 것에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자기 주위의 것은 다 자기의 것을 만들어 버린다. 즉 주위의 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더욱 탐구해 보고 싶어하고 실험해 보고 싶어 하는 압도적 태도를 갖고 성공감을 체험하는 인간으로 발족한다. 첫째, 훗날 전후한 모든 어린이는 걸기를 시작한다. 과거의 부모님은 “비자루로 어린이 아래다리를 한번 몹시 때려주면 빨리 걷는다”라는 내려오는 말에 의해서 때려서 어린이가 아픔에 놀라 무심코 걸음 속도를 빨리하게 길러 왔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님은 이 어린이가 일어서서 손에 잡고 걸음 연습을 할 수 있는 작난감을 선택해 준다. 어린이가 밀고 걸어갈 때에 앞에서 세마리 토끼가 푹푹 푹푹 소리를 내는 작난감, 밀고 걸으면 나비가 나풀 나풀 춤을 추는 작난감 등을 주어 그 육체적 발달을 돕는다. 그리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넓은 방안을 마련해 주고 끌고 밀고 하는 자동차 종류, 조금 큰공, 나무토막, 작난감, 짐승 등을 마련해 주어, 어린이의 생활과 흥미와 경험이 더욱 풍부해 지도록 노력을 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육아법, 아동심리, 아동교육, 아동 발달과 성장, 가정교육 서적 등을 사들여 전문가들의 쓴 글을 참고로 해서 과학적으로, 이상적으로 기르려고 노력한다.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현대 부모님은 어린이를 건설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랄 때보다 세대가 바뀌

었으니 역시 이 변하는 세대에 어울릴 수 있고, 또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르려면 시간을 드려 책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 의논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같이 연구를 해야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된 생활을 하도록 양육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현대 부모님이 하려는 건설적인 교육방법이란?

첫째, 어린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과거의 부모님은 어린이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는 일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평가하였었기 때문에 모두 미련한 짓만 같고 안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 같이 여겨서 모두 그만 두어라, 그런 짓은 하지마라, 그런 짓은 바보같다 하고 어린이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 부모님은 그래 나도 어릴 적에는 그런 짓을 했단다. 나이 어린 늑으로는 그런 생각 밖에 못할 것이야, 그 나이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야 (어떤 책에 꼭 그런 말이 써 있었었지)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로써 이해를 하고 있다. 세살 먹은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삼년 밖에 못 살았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은 자기 어린이의 실수나 요구를 적당한 이해로써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흔히 길에서 이런 일을 본다.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이가 넘어질 때 그 어머니 입에서 “이녀석아, 눈이 멀었어? 밀정한 땅에서 넘어지게!” 하면서 등을 한대 후려갈겨서 넘어진 것보다 더 설어움을 당하는 어린이를 본다. 이것은 과거형의 어머니라고 안할 수 없

다. 현대 교육을 받은 어머니라면 “가엾서라! 네가 다섯살 밖에 안 되었으니 다리의 힘 살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구나 펴 아프지? 이제 일곱살만 되면 너도 안 넘어지고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다.”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여기서 전자의 어린이는 얼굴에 웃음이 없고 억울함과 무엇인지 모르는 슬픔에 무표정한 얼굴의 인간으로 성장하고 후자의 어린이는 희망에 찬 얼굴, 기쁨에 찬 얼굴, 명랑한 얼굴의 소유자로 그 감정이 자라날 것이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이해심을 가진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녀의 행동이나 언사에 합부로 칭찬을 하거나 꾸짖기 전에 심각한 태도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고 노력한다. 모든 어린이의 행동은 원인이 있다. 그 가정에서 배웠거나 그 주위 환경에서 배운 것이지 나면서부터 나쁜 행동, 나쁜 말을 배워가지고 나온 어린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합부로 어린이를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남의 자녀 흉보듯 할 수 있으리오! 남에게 칭찬을 받는 어린이도 남에게 욕을 먹는 어린이도 그 가정, 그 부모님께 직접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대의 부모님은 자기부터 반성해 보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부터 고쳐 나아갈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째로 어린이를 이해하는 부모님은 어린이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한다.

과거의 부모님은 자기의 생각과 지배아래 어린이를 길러 왔다. 벌써 300여년전에 존·아모스 콤미니어스(John Amos Come-

nius)에 의해서 “어린이의 생활은 놀이이고 이 놀이를 자유로히 하는 가운데 어린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배운다”는 학설이 역설되었건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유희가 어린이 성장에 있어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됨을 이해 못하고 이들에게 놀이터, 놀이 대상물 즉 완구 등을 준비 안해주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는 건전한 놀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이 좋은 동무(같은 나이 또래)와 같이 놀이를 하는 가운데 비로서 남과 융합해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육체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부모님은 확실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적어도 그네 하나쯤은 마당 한구석에 매달아 주고 모래상자 하나쯤은 준비해 주어 그들의 유희생활을 더욱 즐거웁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한다. 그것 뿐 아니라 어린이는 호기심에 찾고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기, 뛰어 내리기, 메굴메굴 굴리기, 쪽쪽 미끄러지기, 깡충깡충 뛰기 등을 즐기는 것을 이해해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작은 사다리를 주고 뛰어내릴 께짖을 노아주어 올라가고 뛰어내리도록 어데든지 준비를 해주어 그들의 요구를 채워준다. 뿐만 아니라 잘 놀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들의 육체적 고장이 없는가 조사하고 새로운 흥미를 이르킬 작난감을 사주어 놀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나 배우려고 열심히 질문하는 것을 친절히 대답해 주고 모르는 질문인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전에 그런 것을 배워서 알았었는데 지금은 잊어 버렸다. 이따가 아

버지게서 오시거든 여쭙어 보아라”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그런 것을 잊어버렸는데 백과사전에는 무엇이나 거의 다 쓰여 있으니 우리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보자” 하고 친절한 태도로써 백과사전을 찾아보아 주고 거기에서도 분명한 해답을 못 얻었으면 질문한 방면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얻도록 또한 정확한 답을 얻는 방법(위에 말한 것파 같은 것)을 가르친다. 이때에 현명한 어머니는 자기 집에 백과사전이 준비 못되어 있으면, 이웃집에, 또한 가까운 학교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탐구하지 않는 어린이를 가진 현대 부모님은 어린이를 다리고 여러 곳으로 다니며 여러 가지 이상하고 신기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등을 보여 주어 그들의 지적욕구를 자극시켜 주어 어린이로 하여금 사물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교육에 힘을 쓴다.

세째로 현대 부모님은 아동의 마음의 병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어른들은 거이다 자기 마음 속에 피로움이 생기거나 마음에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적당히 스스로를 위로도 하고 적당히 합리화해서 잊어버릴려 한다. 또는 친구에게나 아는 분께 그 억울함, 피로움 등을 입으로 쏟아놓아 타인으로부터 적당한 해결방침도 얻어듣고 위로도 받으며 혹은 “세상은 이런 것이야” “나 뿐인가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지”하고 자기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해결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이해없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 요구가 좌절당할 때, 교

양이 부족한 교사에 의해서 정신적 타격을 받을 때 그 연약한 마음에 병이 들어도 자기 스스로가 능히 해결할만한 능력이 없이 결국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 남이 볼 때 변태인,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뒤로 슬금슬금 빠져 나가는 비 사교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히 자라는데 요구되는 모든 조건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 병이란 육체적 병과 같이 곧 부모님의 눈에 띄이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어린이에 대한 연구가 적은 부모님은 병이 깊이 뿌리 박고 있어도 능히 발견하지를 못하여 결말에는 건강하든 육체까지 병들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부모님은 건전한 정신으로 어린이가 자라는데 요구되는 다음 몇가지에 늘 주의하고 연구한다.

① 안 도 감

어린이는 그 주위환경이 늘 평화스럽고 자기를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신 것을 확인할 때에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안도감 속에 자라게 된다. 어린이는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시거나 새로운 동생을 보아서 부모님이나 이웃사람, 친척들의 관심이 새동생에게 집중될 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아시는 현대 부모님은 싸우실 일이 생기셔도 어린이를 재워놓고 조용한 음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애기가 생겼을 때는 출근했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기를 드러다 보시기 전에 아우 본형을 먼저 안아 주시고 애무해 주신 후에 새 동생을 보아 주시며 애기의 작난감이나 새 옷을 사

을 때도 아우 본 형의 것을 먼저 주고 동생 것을 나중에 주신다. 젖을 주시는 어머니도 아우 본 형을 먼저 안아주신 후 애기가 배고파 우는데 엄마 젖 좀 먹여주어야지 하는 동의를 구한 후 젖을 주고 아우 본 어린이가 새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데, 또는 목욕시키는 것을 도움게 해서 자기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 많은 책임을 진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 어린이는 안도감 속에 자라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급을 못 받는 어린이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애정을 송두리채 빼앗긴 불안감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못난 짓을 한다. 예를 들면 안싸든 오줌을 자리에 싸거나, 혀 째는 소리로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어른들 안계신 동안에 애기를 꼬집어 뜯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의식적은 아니고 잠재의식에서 오는 행동이라 한다. 오줌을 싸고 이해없는 어머니께 매를 맞을 지언정 그 어머니의 시선과 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린이는 더욱 요구하고 있다.

② 사 랑

어린이는 어머니의 것을 빨고 있을 때 부터 어머니의 평화스럽고 인자하신 얼굴에서 사랑을 느낀다. 점점 자랄수록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과거의 부모님 같이 속마음으로만 자녀를 끔직이 사랑하시고 표현의 모습을 전혀 눈으로 볼 수 없어서는 세상 경험이 적은 어린이로써 능히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들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도움이 요구

될 때, 무슨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도 용기가 없고 정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현대 부모님은 어린애가 학교갈 때, 도라올 때, 그를 잠간 껴안아 주고 뺨을 비비며 사랑이 가득찬 음성으로 대해 주신다. 또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침에 깨우실 때도 뺨을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 주시고 머리를 쓸어 주시며 사랑의 애무로써 껴안아 이르켜 주신다. 이런 사랑의 표현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나는 이웃에서 두 형의 부모를 본다. Y군의 부모는 고등학생인 장남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를 읽고, 연구적으로 이 청년기로 들어갈려는 학생을 지도한다. Y군의 심리적 요구로는 부모님 말씀보다 친구의 말에 더욱 순종해야 하고, 집안식구들과 생활하는 것보다 친구 구름에 끼워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는 그의 부모님은 자기가 인정하는 친구와는 외출도 자유로 허락한다. 그리고 늦어지면 어머니께서 뻘뻘길까지 나아가서 밤늦도록 기다려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어 Y군은 외출하면 늦어질가바 걱정을 하고 늦게 도라올 때는 먼저 어머니께 엿줍고야 나아간다. 그러나 다른 편 K군의 부모님은 최고학부를 나왔으나, 부모님의 주장과 생각대로 자기가 옛날에 자라든 그 방식대로 자녀를 기르려 한다. 같은 고교생의 K군이 외출에서 도라오면 그 부친은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를 때리고 물어 뜯고 보지는 못했으나 그 학생의

비명에 의하면 팔다리를 뽕뽕 매어 놓고 때리는 모양이다. 적어도 그 아버지의 뽕뽕한 성격(늘 잔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뽕뽕하다고 본다)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적으면 한시간 많으면 두 시간의 벌을 준다. 마치 큰 죄인을 고문하는 듯이 취급을 하니 그 학생이 다음날 어찌 건강하고 명량한 정신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가 의문이다. 이와같이 청소년 들에게도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은 사랑과 이해로써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③ 인 정

현대 부모님은 어린이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성장단계에 이어나는 여러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하는 일과 하는 생각을 늘 인정해 준다. 과거의 부모님은 어린이가 무엇을 하든지 무관심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이나 해서 늘 잘못된일만 인정해 주시었다. 예를 들어, 복순이가 종이와 가위를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을 오렸을 때는 못 본척 하고 계시다가 단일 가위로 어머니 옷고름을 잘랐다면 크게 야단을 하고 가위를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그가 만든 종이 모양들을 인정해 주고 너는 참 예쁜 모양들을 만들수 있구나, 종이 좀 더 좋을까? 헌집도 좀 올려보고 싶으냐? 하며 어린이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의 행동을 인정해 주었다면 그는 자기의 재주를 인정받아 무엇이나 더욱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거듭 계속하는 중에 창의심이 발달하고 무엇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고 발견의 만족감을 경

험 할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과거형 부모님은 무엇이나 잘못을 인정해 꾸짖는 교육, 즉 어린이를 소극적으로 후퇴시키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는 창의력도 부족하고 무엇을 할려면 먼저 착수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되고 선뜻 무엇을 해볼려는 용기가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부모님은 어린이에게 무엇을 명령해서 했을 때,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혹은 별로 찬성할만한 일이 못되더라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잘 했다”, “잘 되었다”, “제법이다”, “전보다 훨씬 더 잘 했구나”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어 어린이의 개성을 살피서 좋은 면으로 길러 주고 있다.

인정은 역시 청소년들도 요구하는 문제이다. 나는 중학생에게도 고등학생에게도 이런 인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침에 잠을 깨울 때도 “어서 일어나서 학교가 거라”하는 말 대신 “아이, 요사이 펍 고단하겠구나! 너무 피곤하면 오늘은 결석하고 실컷 잠을 자도록 해라”하고 이불을 꼭 눌러주고 도라서 보면 어느 사이에 펄떡이러난 것을 보게 된다. 이것 역시 자기의 심한 운동, 공부 등이 자기에게는 피곤을 준다는 것을 인정받고 즐거운 감정으로 자리에서 이어나는 것이다. 형의 옷을 물려 입힐 때도 “여기 언니 입든 옷이 떨정한 새 옷이 있으니 입어라”하는 대신에 “너는 언니 일학년 때보다 키가 더 크고 몸도 더 뚱뚱한가 보다” “이것이 언니 일학년 때 입던 옷인데 내게는 적어 보이는구나, 어디 입어보고 싶으면 입어보고 싶으면 이웃집 아이나 주겠다”하면 “더 크다”

라는 인정에서 한번 입어 보고 꼭 맞으면 “어머니 꼭 맞으니 제가 입겠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게 되는 것을 수차 경험했다.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의 자신을 무엇에나 가질 수 있다. 속히 실망하지 않고 무엇에나 주저하지 않고 거듭해 보는 동안 성공하게 된다.

④ 윤리적 도덕적 표준을 세워 기른다

경험이 적은 어린이들은 여러 경우를 당면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모른다. 그래서 현대의 부모님은 어린이가 해이 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 엄하게 준수하게 한다. 똑 같은 행동이 어떤 때는 무사히 통과되고 어떤 때는 징벌의 원인이 되거나 거부를 당하는 것 같은 취급 방법은 불순종의 근원이 되므로 한번 정해진 표준은 엄격한 범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표준은 그 부모님부터 솔선 시범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집에서 가르칠 때는 교통 도덕이니 공중 도덕이니 열심이 입으로 가르치고 어린이를 다리고 밖에 나아가서는 무심코 어린이와 함께 전차를 새치기 해서 타고 남의 담뒀에 서서 소변을 보고, 어린이에게는 이웃과 친절히 지내야 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부모님 자신이 이웃집 부인 행동이 어떠하니, 아이들이 극성맞으니 한다면, “아버지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어” 등의 그 부모님의 일거일동, 한마디의 말씀이 전부 어린이에게 산 교육의 줄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현대 부모님은 먼저 자신들이 도덕가, 윤리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인제

나 친절한 음성과 태도로써 가르쳐 주는 것이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다른 사람과 친절성을 보여 주고, 반대해야 하고 위로를 주어야 하고, 정의와 정직이 왜 세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 등을 기회를 잃지 않고 들려준다.

⑤ 극기력

과거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조건 엄하게 하고 복종시켜서 어린이로 하여금 무엇에나 “예” “예” 하고 맹목적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항의를 하거나 원인을 말하면 “무슨 잔소리야” 하거나 “어른 말대답이야?”하고 이유를 불문코 어린이는 성인들께 복종케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님은 “이유 없는 순종” “예” “예”의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잘못 된다. 일이 있을 때에도 상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고 동기가 선(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해 주고, 어떻게 했더라면 더 잘 되었을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린이가 자기 행동이나 잘못의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어린이의 시기심이나 분노심의 표현이 정상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과 해를 끼칠 정도라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어 지나친 감정의 표현 방법을 극기(克己)으로써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 어려서 극기하는 방법과 조정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이것이 조정되

기 힘들어 결국에는 뜻아닌 살인, 치사, 방화 등으로 죽기 전에는 없이할 수 없는 전과자의 오인이 적히게 된다.

⑥ 독립심

어린이는 신기한 것 새로운 것에는 더욱 흥미를 느끼고 흥미있는 것은 더욱 탐구하고 싶어 하며, 무엇이나 자기 혼자서 탐구하고 경험한 어린이는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다. 용기가 있고 자신을 가진 어린이는 무엇이나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성취(成就)할 수 있다. 마치 공부에 자신 있는 아이는 시험을 칠 때 모를 것이 있으면 용통성 있게 생각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나 자신이 없는 아이는 알든 것까지 있어 비리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 점점 더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무엇이나 자신이 없어 학교서나 가정에서 천대꾸러기, 동무간에 무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일본말 격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많은 여행을 시키라”라는 말은 즉 독립적 기회를 많이 주어 스스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하고 세상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케 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부모님은 지나친 간섭과 보호를 하시는 할머니께 양육을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들이 적당한 보호아래 독립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우리나라에서 말아들 보다 두째 아들이 더욱 힘차고 씩씩한 것은 말아들에게는 지나친 보호와 의존심을 길러 준 까닭이다. 현대 부모님은 어린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모드 것을 어린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고, 자기 것은 자기가 한다

는 관념을 뚜렷이 길러주어 독립적 정신을 기르기에 힘쓴다.

⑦ 민주생활

민주주의란 어떤 정부나, 어떤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생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윤리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생활 방법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실시로 배워야 한다. 현대 부모님은 어린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의견이나 권리까지도 존중해 주며 부모님이 서로 협력해서 도우는 것을 본받게 하고 개인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생활방법을 택한다. 또한 인간의 복리와 타인의 복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공헌하려고 노력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뜻있는 행동과 태도를 갖는 가정생활을 할려고 항상 자기가 가정 생활을 반성하고 평가해서 가정생활의 민주적 향상을 도모한다.

끝으로 말을 맺어 현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첫째 이제부터의 우리나라 어린이도, 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와 이해아래, 억울한 매를 안맞고, 억울한 감정이 머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으니 명랑하게 씩씩하게 자랄 것을 기뻐하오며, 둘째 그들의 요구를 알아서 적당히 충족시켜 주심으로 어린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보다 훨씬 건전히 성장할 것이며, 세째로 어린이의 개성을 살리고 소질을 찾아 길러 줌으로 더욱 행복되게 살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또한 민주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눈부신 발전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끝—